

데스크 시각



김미은 문화1부장

마지막으로, 출연 배우중 가장 연장자인 그가 일어섰다. 50대 중반인 그는 자신을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울어 본 게 지금까지 딱 두 번. 한 번은 지난해였고, 또 한 번은 바로 며칠 전이었다고 했다.

5월 광주를 소재로 한 연극 '푸르른 날'은 지난 6월 광주 공연을 가졌다. 2011년 서울 초연 멤버 그대로였다. 그는 주인공 공 여신의 스승으로 출연했다. 그가 울어 버린 건 광주 첫 공연 후였다.

당시 배우들은 공연장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한 시내 호텔에 투숙했다. 그는 첫 공연을 끝내고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 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광주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달리 보이고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이미 이 역할을 100번도 넘게 연기했다. 하지만, 이날 느꼈던 기분은 그들

어느 중견 배우의 눈물

안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 배우의 그 '진심'은 이후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을 거라 생각한다.

'푸르른 날'에 광주 공연 뒷풀이 자리는 화기애애했다. 출연배우들은 소감을 이야기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들을 하나씩 던졌다. 그가 울립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1980년 메가폰을 든 여성이 외치던 대사였다.

굳이 뒷풀이에 참석한 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였다. 내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작품에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혹평하는 이도 있었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는 이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 중에서 이 말만은 꼭 전해야 할 것 같아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예술가의 진심, 관객의 진심

마지막 공연 전날, 작품을 보고 나오던 대학생 커플을 만났다. 젊은 관객들 반응이 궁금했던 터라 질문을 던졌다가 가슴이 쿵 내려 앉았다. 청년의 한 마디 때문이었다. "연극 보면서 가슴이 다 없애져 버리는 줄 알았어요." 연극의 마지막 장면, 결혼식에 불러 나온 영영 중 한 명이 무심한 듯 울조리던 대사가 너무 아팠다는 말도 덧붙였다. "30년이 지났는데

우리를 기억이나 해 줄랑가 몰라."

이야기를 전해들은 고선웅 연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배우들도 울컥했다. '누군가의 가슴을 다 없애버린' 작품을 공연한 이들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내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품을 보고 느꼈던 관객들의 '진심'은 배우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으리라.

예술의 힘,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이다. 앞뒤 실필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시대, 위로와 위무가 필요한 시대를 건너고 있기 때문일 거다.

지난 5월 시내 작은 레스토랑에서 열린 '어머니를 위한 축제'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지인이 어머니 20주기를 맞아 친척과 가까운 이들을 불러 마련한 작은 클래식 음악회였다. 오페라 아리아, 가곡 등 에 이어 마지막 노래는 지인이 신창현 곡이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이미지 노래 '동백 아가씨'. 한창 고왔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린 공간에서 '동백 아가씨'를 들으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어머니·아버지를 생각했다.

수년 전 본 공연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게 있다. 젊은 무용수 배강현과 김미선의 춤이다. 사람의 몸이 얼마나 익숙한 이런 음식물 속에는 합랑은 다들 지나도 모두 아크릴아미드라는 독이 들

지나해 광주시립미술관에 걸렸던 황재형의 작품 '아버지의 자리'가 준 감동을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은퇴 광부의 굵은 주름살과 물기 고인 눈망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며칠 전 대인 야시장에서 기타 하나 둘러매고 노래하던 젊은 뮤지션의 수줍은 모습도 기억에 남는다.

예술가에 '판'을 허(許)하라

예술가들이 전하는 감동의 기억은 수없이 많다. 새삼스레 그 장면을 불러내는 건 '가슴이 없어져 버린 듯함' 그 순간을 더 만끽하고 싶어서다.

민선 6기가 출범했다. 솔직히 새로운 시장이 취임했다 해서 예술계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술가들에게 없던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쏟아지는 것도 아니다. 한데,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술가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판'을 허(許)하라. 그게 광주시가 할 일이다.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을 응원한다. 언젠대 박수와 환호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그 순간'을 항상 꿈꾼다.

/mekim@kwangju.co.kr

은편칼럼

뜨거운 감자, 감자칩



박행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뜨거운 감자(hot potato)'는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태를 비유하는 영어권 관용구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익숙한 표현이다. 하지만 최근엔 바삭 바삭한 감자칩, 노릇노릇한 프렌치프라이가 이 시대 유럽의 대표적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의 과학자들과 식품안전국 관계자들은 누구나 즐겨먹는 이런 감자 요리들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마냥 두고 볼 수도 없어 고민이다.

7월 초, 유럽식품안전국(EFSA)이 크래커, 감자칩, 커피 등 고온에서 굽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음식에서 발견되는 '아크릴아미드'라는 화학물질이 동물

실험에서 발암물질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에도 위험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유럽에서는 지난 수년간 음식에 들어있는 아크릴아미드에 대한 연구와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으며 식품업체들에게 그 함량을 가급적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크릴아미드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2002년이다. 스웨덴 과학자들이 감자칩과 프렌치프라이 등 굽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물에서 아크릴아미드가 검출된다고 발표하자 학계와 사회일반이 모두 경악했다. 그 함량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허용수에 허용한 한도보다 수백 배 웃도는 양이었다. 조리온도가 높을수록, 조리시간이 길수록, 아크릴아미드 생성량도 증가했다. 아크릴아미드는 플라스틱, 접착제 등의 원료로 쓰이며 신경독성이 있고 발암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급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식재료 자체가 삶은 요리에는 없는 아크릴아미드가 어떻게 고온에서 조리한 음식물에서 검출되는가를 놓고 한동안 '아크릴아미드 미스터리'라고 불렀다. 얼마 후에 영국, 스위스, 미국, 캐나다 과학자들이 개별 연구를 통하여 '아스파라긴'

이 120℃ 이상에서 포도당과 만나면 'Maillard'라는 화학반응으로 아크릴아미드를 생성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스파라긴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하나로서 아스파라가스에서 처음 분리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아스파라긴은 감자와 콩류에 많고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예로부터 술꾼들의 단골 메뉴로 콩나물 해장국이 애용되어 온 것은 경험을 통한 부엌과학의 산물인 셈이다.

식재료들이 조리과정에서 열을 받으면 화학반응을 통하여 다양한 맛과 냄새, 색깔과 질감을 낸다. 구수한 맛과 고소한 맛, 군침 도는 음식 냄새, 노릇노릇하다가 점차 갈색으로 변하면서 생겨나는 아삭 바삭한 질감 등, 부엌은 실용을 위한 응용 과학 공간이고 조리라는 과학이다.

포도당과 아스파라긴은 감자, 콩 뿐만 아니라 여러 곡류와 채소들에도 포함되어 있다. 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낸 비스킷, 구수한 식빵, 입맛 돋우는 닭튀김, 채소 볶음, 향긋한 커피 등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런 음식물 속에는 합랑은 다들 지나도 모두 아크릴아미드라는 독이 들

어 있다.

미국 식약청(FDA)에서 아크릴아미드 관련하여 추진하는 세 가지 목표는 인체 섭취량 측정, 독성 연구, 그리고 아크릴아미드 생성을 최소화하는 요리법 개발이다.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하면 기름보다 낮은 온도에서 조리가 가능하므로 아크릴아미드 위험성이 줄어든다.

우리 부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조리방법은 끓이고, 졸이고, 삶고, 데치고, 찌고, 달이고, 고아먹는 수준이어서 조리의 전 과정이 아크릴아미드 생성 온도 이하에서 이뤄진다. 더구나 우리가 끼니마다 먹는 감자는 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크릴아미드 걱정이 전혀 없는 식품이다.

전세계적으로 '헬빙'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지금, '아크릴아미드 걱정 없는 한국식 조리법(Acrylamide-free Korean-style Cooking)'이라는 제목의 영문 요리책을 발간, 한식 요리들을 널리 소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리 음식문화가 한류 물결을 탄 일시적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세계인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社說

40일간 유병인 '유령' 쫓은 김·경 헛발질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인 전 세 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철은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 송치재 인근 한 매설밭에서 발견된 사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와 지문 채취 결과 유씨로 확인됐다고 발표 했다. 세월호 참사 98일만의 일이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유씨 검거에 법석을 떨었지만 그의 사체 확인으로 또다시 무능과 무기력을 드러냈다. 연인원 130만 명을 동원하고도 유씨를 체포하기는커녕 변사체 발견 이후 40일 동안 '유령'만 쫓아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경은 변사체 주변에 구원파의 문구가 적인 가방과 유씨가 복용하던 건강식품, 고가의 전파와 신발이 있었는데도 이를 노숙자의 단순 변사로 처리해 수사에 허점을 남겼다.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검거는 시간문제라고 장담하던 검찰이 다시 한 번 망신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22일 "초동수사에 실수가 있었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순천경찰서장과 담당 형사과장을 직위해제 했지만 이 정도 선에서 끝낼 일은 아니다. 김·경 수

뇌부에도 책임을 묻는 게 도리다.

변사체가 유씨로 확인됐다고 하지만 찰은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 송치재 인근 한 매설밭에서 발견된 사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와 지문 채취 결과 유씨로 확인됐다고 발표 했다. 세월호 참사 98일만의 일이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유씨 검거에 법석을 떨었지만 그의 사체 확인으로 또다시 무능과 무기력을 드러냈다. 연인원 130만 명을 동원하고도 유씨를 체포하기는커녕 변사체 발견 이후 40일 동안 '유령'만 쫓아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경은 변사체 주변에 구원파의 문구가 적인 가방과 유씨가 복용하던 건강식품, 고가의 전파와 신발이 있었는데도 이를 노숙자의 단순 변사로 처리해 수사에 허점을 남겼다.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검거는 시간문제라고 장담하던 검찰이 다시 한 번 망신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22일 "초동수사에 실수가 있었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순천경찰서장과 담당 형사과장을 직위해제 했지만 이 정도 선에서 끝낼 일은 아니다. 김·경 수

오락가락 적조대책 '방제 표준화' 서둘러야

여수와 완도·고흥 등 전남지역 어류 양식장 주변 곳곳에 적조 예방용으로 비축해 온 수심역 원어치의 생활도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적조 방제 대책이 해마다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달 말부터 유해성 적조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생활도 대신 분말황도를 살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도 지난 4월 분말황도를 적조 구제물질로 추가 고시했다.

생활도의 경우 바다에 살포하면 1~2분 이내에 가라앉아 효과가 미미하지만 분말황도는 20분가량 수중에 머물고 살포 지역도 넓어 적조 방제에 효과적이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분말황도는 기존 생활도 입자의 36% 크기에 단가는 5배가량 비싸다.

정부와 전남도는 지난 1995년 대규

모 적조 피해 발생 이후 거의 유일한 방제 수단으로 생활도를 사용해 왔다.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저비용·고효율 물질로 꼽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전남도가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용하지 않기로 해 해양수산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분말황도 살포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그동안 전남지역 8개 시·군이 40억 원 이상을 들여 적조 예방용으로 비축해 온 11만9000t의 생활도는 골칫거리가 돼 버렸다. 그저 쌓아 놓고만 있어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기존 적조 방제법과 방제 물질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와 전문적인 재평가를 서둘러야 한다. 이를 통해 적조 발생 상황에 따른 방제 물질의 사용, 시기와 절차 등 방제대책의 표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 고

고등학생에게 '지금'을 허하라



박용수 수필가·광주동신여고 교사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10시에 일이 끝나는 노동자는 없다. 유일하게 14시간 노동자가 있는데, 바로 학생이다. 노동은 학교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돈을 좇아 뛰어다니듯, 학생들은 과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독서실로 다시 학원으로 뛰어다니지 않는가.

통과 의례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대학에 가면 취업을, 취업하면 결혼을 고민해야 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야간 심야 학습은 예방주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나 가정에서도 녀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버틸 수 있도록 맷집이 길러지길 바란다. 창의적이고 인문적인 소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보다 제도에 복종하고 길들여진 삶을 살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주입시키는 것과 다를 없어 보인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더 심각하다. 1교시 수학, 2교시 영어, 3교시 기하와 벡터, 4교시 화학, 5교시 실용 영어, 6교시 수학, 7교시 문학, 8교시 기하와 벡터, 9교시 생명과학... 오늘 우리 반 시간표다. 7교시 까지 본 수업이고 8~9교시는 보충 시간이다. 수학이 4시간, 영어가 2시간, 과학 2시간 국어 1시간이다. 인문계 고등학교 자연계다보니 그렇까. 숨 쉴 틈조차 없어 보이는 시간표를 보면, 수학을 유독 싫어했던 기억 탓인지 가슴부터 두근거린다. 게다가 선수학습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수학 시간을 더 확보할 것이다.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새로 취임하는 교육감들에게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업 부담, 성적 경쟁 스트레스부터 줄여 달라'는 이야기부터 꺼냈다. 국·영·수 편중이 심하고 예체능 수업이 너무 적으며, 인문계 학생에게 수학이 너무 어렵다고 한 학생은 하소연했다.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마저 순수하고 기초적인 학문보다 실용 학문 비중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맑고 순수한 영혼

들이 자연의 변화나 하늘의 별을 보고 우주와 인생, 사랑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인문학적 가치가 외면된 지도 상당하리라. 인간을 탐구하고 민족혼을 연마하는 국어 과목이 120점에서 100점으로, 100점에서 다시 A형 B형으로 추락했다. 또, 철학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학과마저 폐지 운운하는 사이에 수학과 영어는 가중치라는 귀한 대접을 받으며 더욱 위풍당당해졌다. 응당 영육을 풍요롭게 하는 음악과 미술, 체육 분야는 자습 따위로 겨우 호흡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고등학교의 현실이다.

지금 고교 교육과정은 황금을 찾아 질주는 폭주 기관차 같다. 모순투성이 세월호의 교훈은 어쩌면 경고에 지나지 않는지 모른다. 기성세대들이 자신들의 꿈을 대신 실현해줄 것이라는 망상과 방관을 반복하는 사이, 우리 아이들은 그 위험한 기차 위에서 '조용히 있으라'는 지상 명령에 숨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기성세대의 삶과 사고를 그들에게 교육이란 미명으로 강요하지 않으면 좋겠다. 임시 제도도 그렇고 대학의 커리큘럼도 그렇다. 무엇보다 기업체는 물

론 정부에서도 성적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사원과 공무원을 선발 채용하면 좋겠다.

인문학적 가치의 중요성은 세월호 사고나 전방 총기 사고 등 사고가 날 때마다 더욱 부각되고 있지 않나. 현 정권 역시 MB정부처럼 지나치게 성장 위주 정책을 펼쳐, 통합과 소통보다는 극한 대립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실은 30년 후 우리의 미래다. 로봇처럼 살아가고 로봇처럼 사유하는 현 교실을 보면 그다지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행히 그런 암재 속에서도 학생들은 해마다. 사소한 볼펜 떨어지는 소리에든 깔깔깔 웃음을 잃지 않고, 친구의 기침 소리에든 박장대소를 한다. 그 어떤 학습의 중압감도 녀석들의 웃음과 유머를 어찌하지는 못한다.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돈 많은 미래를 위해서 '까짓 지금' 이 정도쯤이야'라고 간과하고 싶을지 모른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이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도 한다. 그들에게 추상적인 미래의 꿈 대신에 현실적인 지금을 선물하면 어떨까. 세상에 가장 소중한 선물은 '지금'이라고.

無等鼓

루브르박물관을 비롯해 전세계 유명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대 그리스 조각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로마시대 만들어진 복제품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리스의 문화와 예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로마인들은 위대한 그리스 조각가들이 빚어낸 조각작품을 대리적으로 복제했다. 대표적인 것이 '파르테논 신전'의 아테나 여신상이다.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고전조각의 거장 페이디아스(Phedias)가 만든 이 여신상은 원작이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시기에 활동한 또 다른 거장 미론(Myron)의 작품으로 유명한 '일반 단지는 사람' 역시 기원 후 2세기경 로마인들이 대리적으로 복제한 것이다. 대부분 청동으로 제작됐던 고대 그리스 걸작 조각들의 원본이 현재까지 전해내려오지 않는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후세들이 녹여 화폐나 무기 같은 다른 물건을 만드는데 써버렸기 때문이다.

로마시대 제작된 대리석 복제품들도 비슷한 운명에 처해졌다. 게르만족의 약탈에서도 살아남았던 로마의 옛 조각

상들은 새 건물을 짓는데 혈안이 된 르네상스시대 사람들에게 의해 조각조각 부서지고 불태워져 석회를 만드는데 사용됐다. 인류의 소중한 유산들이 후세들에 의해, 그것도 기껏 건축재료로나 쓰일 회반죽을 만드는데 소모된 것이다.

문화재 수난은 우리나라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 30여 년 동안 약탈 당했던 무수한 문화재 가운데 반환받은 것은 1432점에 불과하다. 일제에 의해 통째로 뜯겨 일본 부흥의 전유물로 옮겨졌던 경복궁 자선당은 기단이나마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지진과 화재로 손상됐다.

경희궁의 수많은 전각들도 '보존 가치가 없다'는 일제의 판정에 따라 파괴됐다. 국보 124호인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은 빛 먼지의 제사비용에 팔려 일본으로 밀반출됐었다.

후세의 무지와 무관심, 무능력이 소중한 우리 문화재의 수난을 초래한 것이다. 우리 문화재는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우리 한민족의 정신적 유산이다. 더 이상의 수난은 없어야 한다.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